

CNB저널

+ART IN



이한성 교수의 옛 절터 가는 길 ②6

“세종대왕, 팔만대장경 일본에 주려했다”

세계경영연구원 이우창 교수 인터뷰 “소통의 리더십 핵심은 코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이젠 국산 방탄차 타야
[인터뷰] 문화상 민주당 비대위장, 나승철 서울변호사회 신임 회장

Art IN

[커버] 최재혁,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가치를 찾다
소나무에 비춘 ‘달빛 녹취록’ 그리는 이재삼 작가

부수인종매제
한RABDC제

9 771975 749003
ISSN 1975-7492
08

갤러리AW '박찬상 개인전'

세밀한 기법으로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패턴을 작품 속에 그려 넣는 박찬상 작가의 개인전이 서울 부암동 갤러리AW에서 2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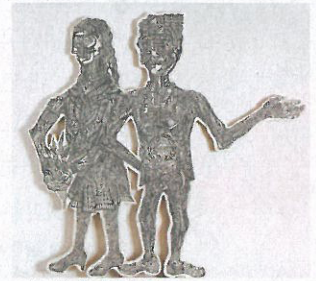
박찬상의 작업 속 다양한 패턴들은 그 하나하나마다 무수히 많은 상상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 얼핏 보면 어지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독특하고 신선한 작업은 보는 이의 눈길을 끌며 볼수록 작품 자체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

“특별한 주제가 있기보다 소재가 마음에 와 닿고 다뤄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영감이 떠오를 때 그걸 그려요. 작업에 많은 패턴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흥이 있어야 하죠. 예를 들어 삼각형 모양이라도 그 안에 담기는 생각과 감정은 무수히 많죠. 삼각형으로 피라미드, 삼각자, 삼각 김밥 등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는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상을 단순히 보고 베끼는 그림이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감정과 생각을 담은 그는 작업에 빠져들다 보면 작업의 고리가 이어지고 또 이어져 소재가 계속 나온다고 했다.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패턴일 수도 있지만 객관적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 그가 찾아낸 그만의 독특한 즉, 먹을 이용한 정밀 세밀 작업의 패턴은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을 자아내게 할 정도다. 패턴마다 이야기가 있는 그의 작업은 하나의 큰 형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패턴을 보고 느껴야 한다. 마음을 비우고 보이는 대로 감상하면 된다. 그는 작품에 대해 어떠한 답도 규정하지 않고 관람자들이 자유롭게 보면서 느끼길 바라면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어찌 보면 복잡하면서도 이집트의 상형문자 같은 신비감이 묻어나는 그의 그림은 우리 생활과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림은 생활의 반영으로서 우리가 느낀 것들이 그림에 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과(부조) 장지위에 먹

국제갤러리 '장-미셸 바스키아 개인전'

21세기 미국 미술의 검은 피카소라 불리는 장-미셸 바스키아(Jean-Michel Basquiat) 전이 국제갤러리는 K2 전시장에서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린다.

1988년 8월 27세의 나이로 드라마 같은 삶을 마감한 바스키아는 짧았지만 왕성한 8년간의 작품생애를 통해 미국 미술의 신표현주의 및 신 구상회화의 대표적인 작가로 불린다. 지난 2006년에 이은 두 번째 국제갤러리 개인전은 80년대 미국 팝 아트의 문화적 부흥에 따른 당시의 사회상을 반추한다. 특히 영웅적 흑인아이콘, 만화, 해부학, 낙서, 인종에 대한 그만의 시적이고 상징적인 문구는 시대적 하위문화의 정치적이고 자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약관의 나이로 80년대 뉴욕 미술계의 스타덤에 오른 바스키아는 현대 회화의 대가(피카소, 장 뒤뷔페, 싸이 톨블리, 그리고 로버트 라우센버그)들과 함께 거론되기도 했는데 정규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그만의 독특한 이미지들의 구성과 조합은 당시 뉴욕미술의 주요 평론가 및 화랑가 사이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전시작품으로 구성되어있는 다양한 해부학의 도상들이 그려진 이미지들은 7살 불의의 교통사고로 비장을 들어내야 했던 시절 당시 어머니로부터 선물 받은 '그레이트의 해부학'책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이는 추후 전통적인 미술언어에 구애 받지 않은 바스키아만의 독특한 작품언어에 근간이 됐다.

바스키아는 비교적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광기 어리고 열정적인 작품 활동을 통해 동시대의 중요한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작품 주제는 앞서 언급한대로 자전적 이야기, 흑인 영웅, 만화책, 해부학, 낙서, 낙서와 관련된 기호 및 상징뿐 아니라 금전적 가치, 인종주의, 죽음과 관련한 그만의 시적 문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같은 주제들은 때때로 경계가 불분명하며 복합적이지만 작품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기호, 문자, 인물, 등의 양식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Untitled (Hand Anatomy), Acrylic, oilstick and paper collage on canvas with tied wood supports, 152.4x152.4 cm, 1982 (c)The Estate of Jean-Michel Basquiat_ADAGP, Paris_ARS, New York (제공 국제갤러리)

리서울 갤러리 '이준 개인전'

중국 전통 재료와 기법을 현대에 맞춘 혁신적 그림 기법을 사용하는 이준 개인전이 리서울 갤러리에서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이준(李俊) 작가는 1964생으로 중국 대표 미술가 중의 1인이다. 1988년에 중국 서북사범대학 미술과를 졸업하고 2002년까지는 보경중앙미술학원에서 중국 회화에 관한 재료 및 기법을 연구했다. 현재 중국 미술가 협회 회원이고 중국 인물화연구회 회원, 청화 대학의 박사이고 소흥시 문리미술학원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이준은 교수생활을 하면서도 창작에도 전념해 작가로서 명성도 날리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중국 북서부 청해시 서녕에서 생활하며 작품 활동을 했다. 북서부 고원지대에서 10여 년 간 생활함으로써 수수하고 질박한 예술의 격조를 키운 동시에 서북 고원의 자연 풍모와 사회생활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 중국 서북 고원의 자연의 아름다움과 전원생활에 대한 모습을 이준 특유의 작품으로 그려낸다. 삶의 진실을 꿰뚫어 보는 작가적 혜안으로 거친 들판, 웅장한 산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 등 인간과 자연 풍광을 묘사하는 그림을 보여준다.

중앙미술학원 교수인 후 웨이, 티엔리밍 교수와 교류하며 전통적인 회화 재료 및 기법을 학습해 중국 전통의 재료와 기법을 현대적으로 운용하는 혁신적 그림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준 작품의 다른 한 특색은 사생이 창작활동에 중요한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다. 작가는 늘 현실 생활과 시대정신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본다. 마흔 살이 된 이준은 중국 회단에서 성과를 얻었고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작가의 길을 가고 있다.



인물사생, 40x40cm, 2012